

제일모직, 고투명 인조대리석 개발

세계 최초로 기술특허도 출원 ... 2006년 세계시장 11억달러로 확대

제일모직은 기존 인조대리석의 투명도 문제를 극복한 고투명칩 인조대리석 <템피스트>를 개발했다고 11월 13일 발표했다.

건물내장재, 주방용 가구 등에 사용되는 인조대리석은 표면이 불투명해 천연대리석과 같은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제일모직이 세계 최초로 고투명제품을 만들어 기술특허 출원까지 받았다.

인조대리석 시장규모는 2005년 8억5000만달러에서 2006년 11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일모직은 그동안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에 인조대리석을 시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DuPont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3>